
주요국 예산안 - 영국

2018. 12.

연구책임자

박한준 센터장

강희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한혜란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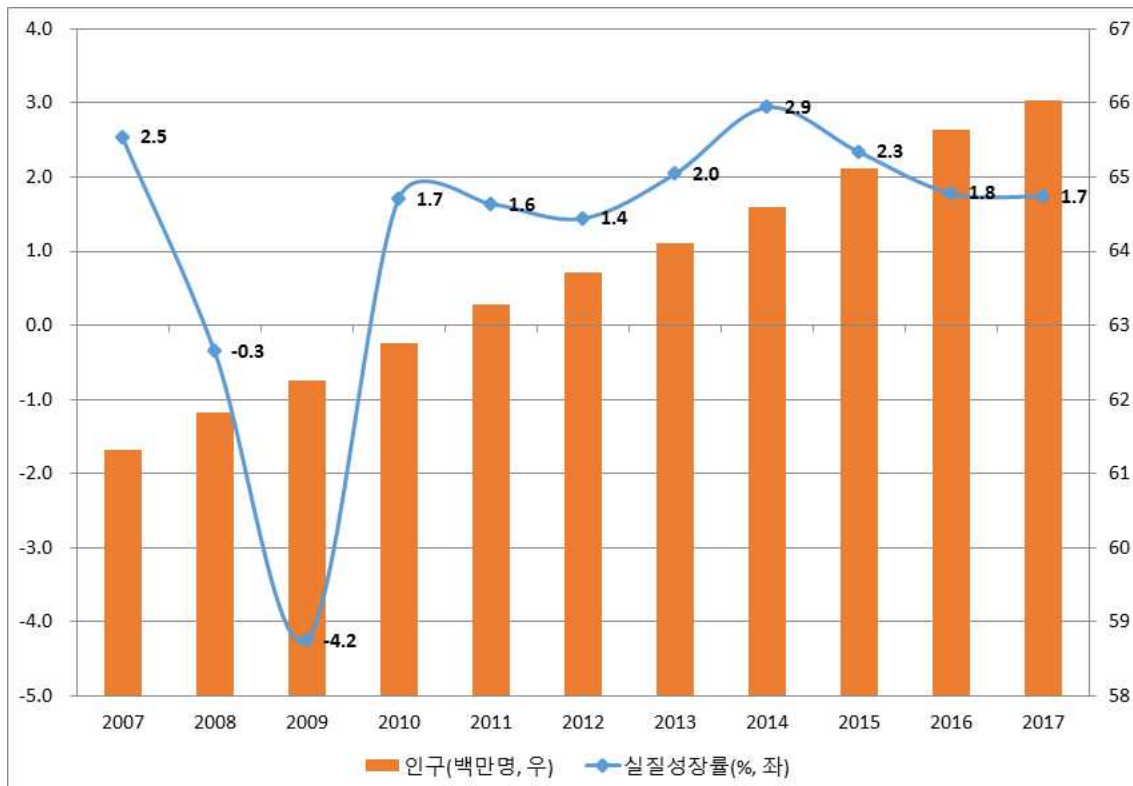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3
3. 예산안 주요 내용	7
가. 수입	7
나. 지출	11
4. 주요 재정정책	16
가. 경제성장	16
나. 복지 및 공공서비스	18
다. 브렉시트(Brexit) 대응	20
라. 재정건전화	21

영국 개황

- FY2019-20 : 2019년 4월 ~ 2020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8*, 2018.10.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 환율 : 1파운드 = 약 1,455.43원(2017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7년 경상GDP 2조 8,663억 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7년 기준 61.5%(우리나라 80.8%(잠정치 기준))
- 인구 : 6,604만명(2017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영국 재무부는 '가을예산안 2018(Autumn Budget 2018)'을 발표(2018.10.29.)
- 경제·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9년 경제성장률은 1.6%(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로 전망됨
 - (재정전망)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재정적자) 비율은 FY2019-20에 1.4%로 예측되며, FY2016-17에 85.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9-20에 82.8%로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Hammond 재무부 장관은 '긴축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힘
 - 영국이 EU를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경제 구축,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공공서비스 및 생활수준 제고 관련 조세·재정 정책 제시
- (수입·지출) FY2019-20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225억파운드 증가한 8,098억파운드(GDP 대비 36.8%),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288억파운드 증가한 8,416억파운드(GDP 대비 38.3%)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2018 가을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FY2019-20에 150억 8천5백만파운드 규모로 추정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기금 증액, 연구개발 관련 자금 지원, 도심 상가(High Street)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감면 등 추진
 - (복지 및 공공서비스) 향후 5년간 NHS 지원 예산 증액, 통합급여 관련 지원 확대, 성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 재정 추가 지원 등
 - (브렉시트 대응) EU 탈퇴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파운드(FY2019-20)를 편성
 - (재정건전화) 2019년에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발표할 예정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표 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전년 대비 % 변화)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성장률	1.7	1.3	1.6	1.4	1.4	1.5	1.6
(3월 전망 대비 변화(%p))	(0.0)	(-0.3)	(0.4)	(0.1)	(0.1)	(0.0)	-
- 가계소비	1.8	1.3	1.2	1.2	1.3	1.4	1.5
- 정부소비	-0.1	1.0	2.1	2.0	1.7	1.6	1.6
- 기업투자	1.8	0.5	2.3	2.1	2.1	2.1	2.2
- 정부투자	1.7	-0.2	5.7	3.3	1.8	0.9	1.4
- 순수출 ¹⁾	0.7	0.2	-0.1	-0.1	0.0	0.0	-0.1
소비자물가(CPI)상승률	2.7	2.6	2.0	2.0	2.1	2.1	2.0
실업률(LFS)	4.4	4.0	3.7	3.8	3.9	3.9	4.0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Table 1.1 일부 발췌.

- (경제성장률) 재정 확대(budget giveaway)에 힘입어 2019년 경제성장률은 3월 전망 대비 약 0.4%p 상향 조정된 1.6%로 전망됨
 - 2018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 흑한의 일시적 영향 등이 반영되어 지난 3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1.3%로 전망됨
 - 2018년 이후부터 2022-23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3월 전망 대비 0.6%p 상향 조정(경제활동참가율 조정, 균형실업률 조정 등 반영)된 6.1%를 기록할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상승과 파운드화 약세 등으로 인해 2018년 2.6%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유가 상승 영향의 약화와 관세 및 에너지 가격 정책의 영향으로 2.0%로 하락할 전망
 - 이후 전망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 내외를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2018년 실업률은 4.0%로 1975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은 3.7%로 감소할 전망

- 고용률은 2018년 3~5월에 최고치(75.7%)를 달성한 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 약 3,3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평균 임금상승률은 2018년 2.6%, 2019년 2.5%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23년 3.2%를 기록할 전망
- (주요 리스크)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²⁾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경제활동, 환율, 자산가격 등에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외에도 생산성, 기대 이자율, 가계 저축, 실업률 및 임금, 국제무역 분쟁, 경상수지 적자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임

나. 재정전망

- (재정적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FY2018-19에 1.2%, FY2019-20에 1.4%로 예측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매해 감소하여 FY2023-24년 0.8%로 FY2001-0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전망기간 동안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지난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예상보다 높은 세수 및 낮은 지출 실적(2018년), 경제전망 가정의 균형실업률 조정으로 인한 근로 세입 증가 및 실업 관련 복지 지출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
 - 다만 예산안에서 발표된 재정책대 정책들은 공공부문 순차입의 일부 증가 요인으로 작용
 -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FY2017-18에 2.0%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3% 기준³⁾을 하회하였으며 전망기간 동안에도

1)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labour market: November 2018, 2018.11.13.

2) 노딜(no deal) 시나리오는 2019년 3월까지 EU와 영국이 탈퇴 협정 및 EU-영국 간 향후 관계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를 의미

3) 재정건전화 달성, 재정 규율 확보 등을 위해 EU 차원에서 회원국에 적용하고 있는 수치화된 재정준칙으로 일반정부 재정적자 기준은 GDP 대비 3%,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 기준은 GDP 대비 60%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임

- (국가채무) FY2016-17에 85.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8-19에 83.7%, FY2019-20에 82.8%로 감소
 - 명목 GDP 전망 조정, 정부 채무 규모 전망 등을 반영해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지난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표 2>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대비 %)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세입·세출							
경상수입(a)	36.6	37.0	36.8	37.0	37.0	37.0	37.2
총관리지출(TME)(b)	38.5	38.2	38.3	38.1	38.0	37.9	37.9
공공부문 경상지출(c)	34.5	34.4	34.2	34.0	34.0	33.9	33.9
공공부문 순투자(d)	2.0	1.9	2.2	2.2	2.2	2.1	2.2
감가상각(e)	2.0	1.9	1.9	1.9	1.9	1.9	1.9
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1.9	1.3	1.6	1.3	1.1	0.9	0.8
공공부문 순채무	85.0	83.7	82.8	79.7	75.7	75.0	74.1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1.9	1.2	1.4	1.2	1.0	0.9	0.8
경상예산적자(c+e-a)	-0.1	-0.7	-0.8	-1.1	-1.1	-1.2	-1.4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¹⁾	2.0	1.3	1.5	1.3	1.3	0.9	0.7
일반정부 채무 ¹⁾	85.6	85.0	84.1	83.2	82.7	81.8	80.8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Table 4.45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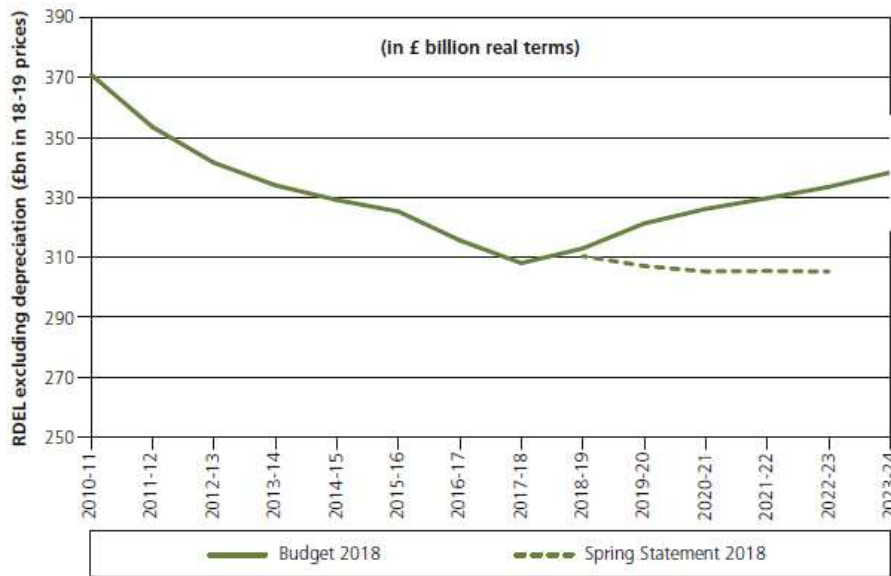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 (재정기조) 예산 연설에서 Hammond 재무부 장관은 ‘긴축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며, 예산안에도 정부가 2010년 이래로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개선해왔으며 이제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설명이 포함됨
 - 영국이 EU를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생활

수준 제고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경상지출이 증가세(실질 증가율 기준)로 전환될 전망

[그림 1] 경상지출 부처별 지출한도(Resource DEL, 감가상각 제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8*, 2018.10., Chart 1.5.

□ 정책 방향

- (신경제 구축(Building a new economy)) 생산성 제고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므로 정부는 생산성을 주요 우선 순위로 설정해 왔음
 - (인프라 투자) 국가생산성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370억파운드로 증액, 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에 7억 7천만파운드 추가 지원 등
 - (신기술 및 혁신)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제조업 혁신, 핵융합 분야 등에 대한 16억파운드 규모의 투자
 - (주택) 2017년 가을 예산에서 발표된 주택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추가 조치 수립, 신규 주택을 위한 주택인프라기금 5억파운드 증액, 중소 주택 건설 회사에 대한 보증 지원 등
 - (역량 강화) 국가재교육제도(National Retraining Scheme)⁴⁾ 1단계 사업에 1억

- 과운드 지원, 견습직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패키지 도입 등
- 이 외에도 기업 및 창업 지원, 직접 대출 제도를 통한 수출 지원 등을 발표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 제도(A fair and sustainable tax system)) 근로 방식과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조세 제도에 반영, 기업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세 제도 운영 등
 - 소득세 기본 공제적용 기준 상향 조정(11,850→12,500파운드) 조기 시행(2019년 4월), 연료세 및 일부 주세 세율 동결 등
 - 도심 상가 지원을 위해 일부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한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⁵⁾ 경감, 사업 투자 장려를 위해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강화 등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도입(2020년 4월), 민간 부문 off-payroll⁶⁾ 근로에 대한 과세 개혁, 조세회피 방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신규 과세 제도 도입 등
 - (공공서비스 및 생활수준 제고(Public services and living standards))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선을 위해 신규 투자 제공
 -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FY2023-24까지 NHS 예산 지원 205억파운드 증액, FY2023-24까지 정신 건강 서비스 예산 연 20억파운드 이상 확대(NHS 예산 지원에 포함) 등
 - (국방·안보) 군 현대화, 사이버 안보 강화, 대잠수함전(anti-submarine warfare)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해 FY2018-19~FY2019-20에 국방부 추가 지원(10억파운드), FY2019-20에 대테러 정책 추가 지원(1억 6천만파운드) 등
 - (복지) 5년간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전환 지원을 위한 추가 정책, 통합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 상향 조정을 위해 연간 약 17억파운드

4) 정부는 고용주와 협력하여 신경제(the new economy)에서 필요한 기술 재훈련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재교육제도(National Retraining Scheme)를 개발하고 있음. 우선 2017 가을 예산안에서 제도 개발 기간 동안 디지털 및 건설 분야 훈련 지원에 6,400만파운드를 배정한 바 있음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news/autumn-budget-2017-25-things-you-need-to-know>

5)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기업의 비거주 재산세임

6) 고용중개회사, 용역회사 등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며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됨

드 지원 등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⁷⁾ 인상(7.83→8.21파운드(2019년 4월)), 성인 및 아동 돌봄 서비스(지방정부 제공)에 대한 추가 지원(6억 5천만파운드), 학교 장비·시설 지원(4억파운드) 등

□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8 가을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⁸⁾은 FY2018-19에 23억 5백만파운드, FY2019-20에 150억 8천5백만파운드로 추정

- 동 예산안의 정부 정책으로 FY2019-20에 지출은 109억 5백만파운드 확대, 세입은 41억 8천만파운드 축소될 전망

<표 3> 2018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지출정책	-2,035	-10,905	-13,370	-17,880	-23,650	-30,520
세입정책	-270	-4,180	-1,025	280	125	-40
정책 총계	-2,305	-15,085	-14,395	-17,600	-23,520	-30,560

주: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8*, 2018.10., Table 1.

7) 영국은 연령과 견습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름. 법정생활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영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마다 조정됨

8) 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주요 정책의 비용 및 수입

3.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수입

□ (수입 전망) 예산책임청(OBR) 전망에 따르면 경상수입은 FY2018-19에 전년 대비 333억파운드 증가한 7,873억파운드(GDP 대비 37.0%), FY2019-20에 전년 대비 225억 파운드 증가한 8,098억파운드(GDP 대비 36.8%)를 기록할 전망이다)

* 동 예산안에서 발표된 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 기준 조정, 연료세 및 일부 주세 세율 동결 등을 반영한 결과 FY2019-20의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

- 전망기간 동안의 경상수입 규모는 예상보다 양호한 FY2018-19 세수 실적, 높은 고용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어 지난 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됨
- (세목별 수입) FY2019-20 소득세는 전년 대비 27억파운드 증가한 1,929억파운드, 국민보험기여금은 50억파운드 증가한 1,419억파운드로 추계됨
 - FY2019-20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50억파운드 증가한 1,372억 파운드, 법인세는 약 5억파운드 증가한 600억파운드, 지방세(council tax)는 전년 대비 17억파운드 증가한 359억파운드, 비거주재산세는 2억파운드 증가한 309억파운드로 예상됨
 - 석유세, 은행세, 담배세 등의 규모는 FY2019-20에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전망
- (경제유형별 수입) FY2019-20 경제유형별 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은 생산 및 수입과세 36%(2,919억파운드), 소득 및 재산세 32.6%(2,640억파운드), 법정사회보장기여금 17.5%(1,419억파운드) 등의 순서로 나타남

9)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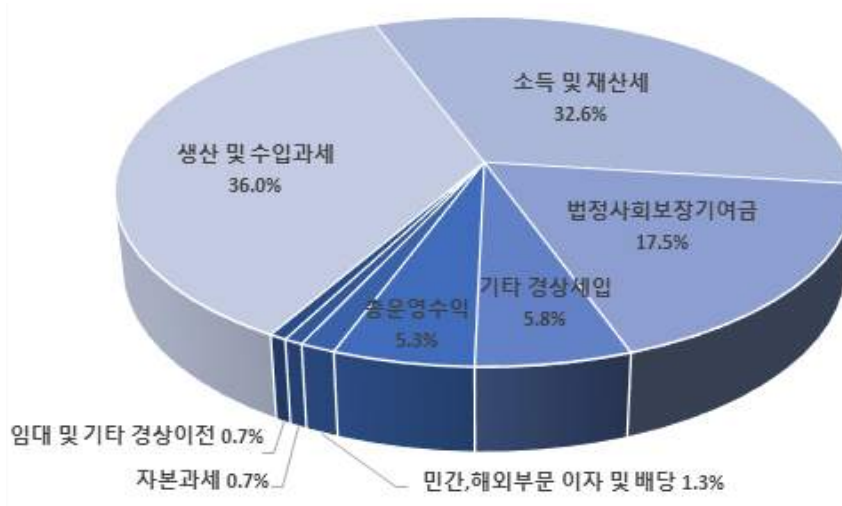
<표 4>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소득세	180.7	190.2	192.9	203.2	210.7	219.7	229.9
국민보험기여금(NICs)	132.5	136.9	141.9	147.8	153.4	159.2	165.5
부가가치세	125.3	132.2	137.2	141.9	146.4	150.8	155.3
법인세	55.9	59.5	60.0	59.6	60.9	63.6	66.0
석유세	-0.6	-0.6	-0.7	-0.7	-0.5	-0.4	-0.3
연료세	27.9	28.3	28.3	29.2	30.2	31.1	32.0
비거주재산세	30.2	30.7	30.9	31.4	33.2	33.9	34.5
지방세(Council tax)	32.1	34.2	35.9	37.0	38.1	39.2	40.4
VAT 환급(refunds)	17.1	17.8	18.4	19.1	19.6	20.1	20.7
자본이득세	7.8	8.7	9.1	10.6	10.8	11.6	12.5
상속세	5.2	5.5	5.7	5.9	6.2	6.5	6.9
부동산취득세	13.6	12.8	13.3	14.1	14.9	15.8	17.2
주식취득세	3.5	3.7	3.8	3.9	4.0	4.2	4.3
담배세	8.8	9.3	9.2	9.2	9.2	9.1	9.1
주세	11.6	12.3	12.7	13.0	13.6	14.1	14.6
항공여객세	3.4	3.7	3.8	4.0	4.2	4.4	4.6
보험료세	5.9	6.3	6.3	6.3	6.3	6.3	6.3
기후변화세	1.9	2.0	2.2	2.2	2.2	2.2	2.5
은행세(Bank levy)	2.6	2.5	2.3	1.9	1.1	1.1	1.1
은행추가세(Bank surcharge)	1.9	1.9	2.0	2.0	2.0	2.1	2.1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2.7	2.8	2.9	3.0	3.1	3.2	3.4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0.2	0.1	0.1	0.0	0.0	0.0	0.0
청량음료사업세(설탕세)	0.0	0.3	0.3	0.3	0.3	0.3	0.3
디지털서비스세	0.0	0.0	0.0	0.3	0.4	0.4	0.5
기타 국세(HMRC taxes)	7.5	7.4	7.4	7.6	7.7	7.8	7.8
자동차소비세	6.2	6.4	6.4	6.7	6.9	7.2	7.5
면허료 수입	3.2	3.3	3.3	3.4	3.5	3.6	3.7
환경부담금	6.5	10.2	11.2	11.8	12.2	12.4	13.1
EU ETS 경매세	0.4	0.6	1.6	1.2	1.2	1.4	1.5
기타 조세	6.9	7.2	7.5	7.7	7.9	8.2	8.4
국민계정 조세수입	700.7	736.1	755.8	783.6	809.6	839.0	871.3
EU 부담금 공제	-3.4	-3.3	-3.3	-3.4	-3.4	-3.5	-3.5
이자 및 배당	7.1	8.8	10.7	12.0	13.4	14.5	15.2
총운영수지	46.4	42.1	42.9	44.5	46.4	47.8	49.5
기타수입	3.2	3.6	3.7	3.8	3.6	2.9	3.0
총 경상수입	754.0	787.3	809.8	840.4	869.6	900.8	935.5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1.8)	(+11.5)	(+9.7)	(+15.5)	(+22.1)	(+24.2)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Table 4.6 및 4.7.

[그림 2] FY2019-20 경제유형별 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



출처: OBR, October 2018 Economic and Fiscal outlook: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8.10., Table 2.42.

- (주요 조세정책의 영향) 예산안에서 도입된 조세정책으로 FY2018-19에 2억7천만 파운드, FY2019-20에 41억 8천만파운드의 세입 감소 효과가 예상됨
 - (생활수준 개선) FY2019-20에 생활수준 개선 관련 조세정책으로 37억 9천5백만 파운드 세수 감소 효과 발생
 - 주로 소득세 기본 공제적용 기준(11,850→12,500파운드)과 고세율 구간 기준 (46,351→50,000파운드) 상향 조정 조기 시행(2019년 4월)의 영향에 기인
 - 2020년 4월까지 9년 연속 연료세 동결, 맥주, 사과주, 증류주에 대한 주세 세율 동결 등도 세수 감소 요인
 - (산업 및 성장) 한시적으로(2019년 1월~2020년 12월)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연간 투자공제(AIA)를 현행 2십만파운드에서 1백만파운드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 감소
 - (지역발전) 도심 상가 지원을 위해 과표 기준 51,000파운드 미만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한 비거주재산세를 1/3 감면(FY2019-20~FY2020-21)함에 따라 연간 약 5억파운드의 세수 감소
 - (공정한 조세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와 조세회피·탈루 방지 관련 조세정책으로 FY2019-20에 1억 8천5백만파운드 세수 증가 효과 발생

<표 5> 2018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생활수준 개선						
소득세 기본 공제 적용 기준 및 고세율구간 기준 상향 조정	0	-2,790	-1,935	-1,445	-1,605	-1,780
연료세 세율 동결(2019-20)	0	-840	-855	-880	-910	-935
일부 주세 세율 동결 및 조정	-35	-165	-175	-175	-180	-185
산업 및 성장						
연간투자공제 일시적 확대	-215	-600	-425	+140	+185	+155
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자본투자 공제	-55	-165	-260	-365	-475	-585
감가상각 특별공제율 인하	+75	+250	+360	+325	+315	+305
주거 및 주택소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지분공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지세 감면 연장	*	-5	*	*	*	-5
환경						
에너지효율설비에 대한 자본투자공제 제도의 공제 확대 중단	0	+10	+50	+100	+80	+75
지역발전						
일부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한 비거주재산세 감면	+10	-490	-450	+45	-15	0
공공화장실의 비거주재산세 감면	0	0	-5	-5	-5	-5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0	+5	+275	+370	+400	+440
민간부문 off-payroll 근로 과세 개혁 확대(중소기업 제외)	-5	-150	+1,165	+595	+635	+725
법인세의 양도손실 이월 제한	0	+25	+110	+140	+140	+125
자본이득세 기업가 감면 요건 기한 확대	0	+5	+10	+75	+80	+90
거주용 주택 감면 제도 개편	0	+15	+50	+120	+135	+150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소득 현행 유지	0	0	+60	+130	+145	+150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고용수당 개편	0	0	+225	+260	+290	+320
가스와 전기의 기후변화세율 조정	0	0	*	*	*	+5
골재세(Aggregates Levy) 동결	0	-10	-15	-15	-15	-15
대형화물차 자동차소비세 동결	0	-5	-5	-10	-10	-10
담배세율 조정(RPI+2%p, 일부 담배 1%p 추가)	0	+5	+5	+5	+5	+5
탄소가격 지원(CSP) 세율 동결	0	0	-15	-15	-20	-20
주세 산정 이후 특정 주류의 희석 금지	0	+65	-15	+85	+85	+90
성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제 한도 유지 등	0	*	+5	+5	+5	+10
조세회피·탈루 방지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파산 관련 원천징수세액 보호, 탈루 방지	0	+10	+65	+150	+195	+185
엄격한 부가가치세 조정 규정 도입	+5	+150	+200	+200	+195	+190
역외 조세회피 방지	*	+65	+65	+75	+95	+100
기업인 자본이득세 감면 남용 방지	0	+5	+10	+10	+10	+15
기존에 발표된 정책						
대학등록금 동결(2019.9.)	0	*	-10	-20	-30	-40
국민보험기여금개편법안 적용 연기, Class2(특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의 국민보험기여금 유지	-5	+180	+395	+370	+335	+310
보육바우처 신규 가입 종료 연기	-45	-55	-50	-40	-25	-10
고정배당률 배팅 참여액 상한 하향조정	0	-120	-245	-255	-260	-270
원격도박세율 인상(2019.10.)	0	+130	+255	+265	+280	+295
총 세입정책 효과	-270	-4,180	-1,025	+280	+125	-40

주: 1.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2.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8*, 2018.10, Table 2.1.

나. 지출

□ (지출 전망) 예산책임청(OBR)이 전망한 총관리지출(TME) 규모는 FY2018-19에 전년 대비 190억파운드 증가한 8,128억파운드(GDP 대비 38.2%), FY2019-20은 전년 대비 288억파운드 증가한 8,416억파운드(GDP 대비 38.3%)임

- 예상보다 낮은 채무이자 및 복지지출로 인해 FY2018-19 총관리지출은 3월 전망 대비 33억파운드 하향 조정되었고 FY2019-20부터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지원 및 기타 지출의 증가를 반영해 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됨
- FY2019-20 경상지출은 전년 대비 204억파운드 증가한 7,519억파운드, 총투자는 전년대비 84억원 증가한 897억파운드로 예상됨
- FY2018-19부터 FY2023-24 동안 총관리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4%로 전망
 - 특히 경상지출(자원지출)의 부처별지출한도(DEL)는 FY2019-20에서 FY2023-24 까지 연평균 1.2%의 실질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 보건의료서비스(NHS) 추가 지원으로 인한 것임

<표 6> 총관리지출(TME)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공공부문 경상지출							
자원 DEL	288.6	295.6	311.5	323.2	332.9	343.1	354.7
자원 AME	422.9	435.9	440.4	450.4	465.3	481.4	498.4
사회보장급여	218.8	223.0	227.4	231.6	239.1	248.2	258.4
지방재정 지출	48.7	51.1	50.7	51.8	53.8	55.5	57.0
중앙정부총채무이자,APF 채무이자삭감	41.5	39.8	42.1	43.0	44.4	45.7	46.8
스코틀랜드정부 지출	26.5	27.6	28.1	29.3	30.2	31.1	32.2
EU분담금	9.5	11.7	13.5	10.5	10.8	7.9	4.2
EU분담금대체추정지출	-	-	-	3.0	2.8	5.6	9.4
순공공서비스연금지출	11.8	12.6	6.7	6.7	7.6	8.7	9.2
기업및기타세액공제	3.6	4.6	4.6	4.7	4.7	4.8	5.0
BBC 지출	3.7	3.9	3.8	3.8	3.6	3.9	3.9
국가복권 지출	1.2	1.3	1.3	1.2	1.2	1.2	1.2
일반정부귀속연금	1.3	1.3	1.3	1.3	1.3	1.3	1.3
공기업채무이자	2.6	0.5	0.4	0.4	0.5	0.5	0.5
철도회사(NetworkRail)지출	1.1	0.8	-	-	-	-	-
감가상각	30.5	31.1	32.3	33.7	35.1	36.6	38.1
경상부가가치세환급	15.3	15.7	16.2	17.0	17.5	18.0	18.5
환경부담금	6.8	10.6	11.7	12.9	13.3	13.5	14.2
기타 경상지출	1.5	0.9	0.8	0.7	0.8	0.8	0.8
기타 회계조정	-1.6	-0.5	-0.6	-1.1	-1.4	-2.0	-2.2
총 공공부문 경상지출	711.5	731.5	751.9	773.6	798.1	824.4	853.1
공공부문 투자							
자본 DEL	44.3	50.2	61.6	65.5	69.4	71.1	75.8
자본 AME	38.0	31.1	28.1	27.9	25.9	26.1	26.4
지방재정 지출	12.4	11.5	11.6	10.0	9.6	9.6	9.8
공기업 지출	17.2	10.8	10.8	10.3	10.2	10.7	10.7
철도회사(Network Rail) 지출	6.7	5.2	-	-	-	-	-
스코틀랜드정부 지출	3.0	3.4	4.1	4.5	4.3	4.4	4.3
세무소송	0.0	0.0	1.3	2.4	0.4	0.4	0.4
기타 자본지출	0.8	0.8	1.0	1.4	1.6	1.6	1.7
기타 회계 조정	-2.1	-0.7	-0.7	-0.6	-0.3	-0.6	-0.5
총 공공부문 투자	82.3	81.3	89.7	93.5	95.2	97.2	102.2
감가상각 공제	-41.1	-40.1	-41.3	-42.9	-44.5	-46.0	-47.7
공공부문 순투자	41.2	41.2	48.4	50.6	50.8	51.2	54.5
총관리지출¹⁾	793.8	812.8	841.6	867.1	893.4	921.7	953.3
<i>(3월 전망 대비 변화분²⁾)</i>	<i>(-7.0)</i>	<i>(-3.3)</i>	<i>(4.7)</i>	<i>(10.6)</i>	<i>(17.1)</i>	<i>(20.9)</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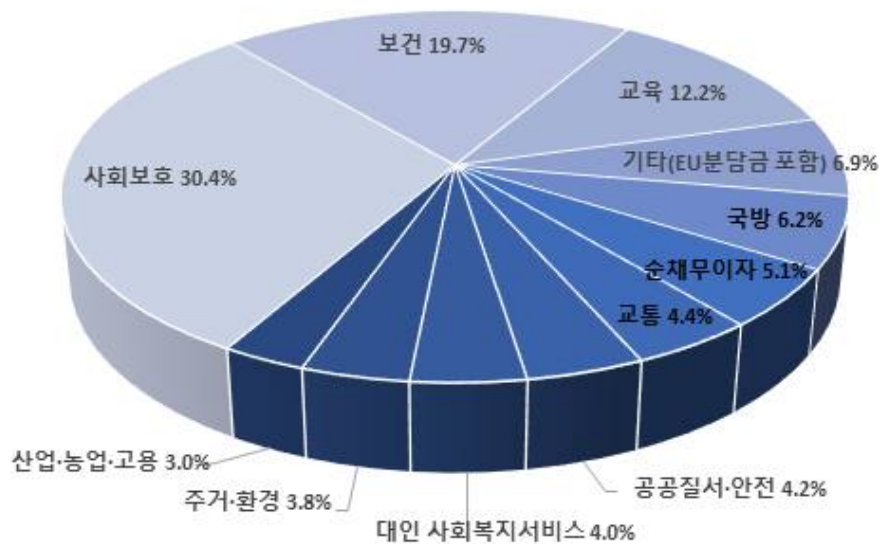
주: 1)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DEL+자원 AME)과 공공부문 총투자(자본 DEL+자본 AME)의 합으로 구성. 부처별지출한도(DEL)은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계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2) 통계 및 예산 분류 변경을 반영한 '조정된 3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을 의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Table 4.18 및 4.20.

- (기능별 지출) FY2019-20의 공공부문 지출에서 사회보호(2,560억파운드), 보건(1,660억파운드), 교육(1,030억파운드) 분야 지출이 높은 비중을 기록
- 이 외에도 국방 520억파운드, 순채무이자 430억파운드, 교통 370억파운드, 공공질서·안전 350억파운드, 대인 사회복지서비스 340억파운드, 주거·환경 320억파운드, 산업·농업·고용 250억파운드 등 배정

[그림 3] FY2019-20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416억파운드)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8*, 2018.10.29., Chart1.을 참고하여 작성함.

- (주요 지출정책의 영향) 예산안에 제시된 지출정책으로 인해 FY2018-19에 20억 3천5백만파운드, FY2019-20에 109억 5백만파운드의 지출 증대 효과가 예상됨
- (공공서비스 지출) FY2019-20에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추가 지원 계획으로 73억5천만 파운드, 돌봄서비스(social care) 추가 지원으로 7억 7천5백만 파운드, 국방 관련 비용 8억파운드 지출 확대
- (복지지출) FY2019-20에 통합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 1천파운드 상향 조정(2019년 4월)으로 5억 4천5백만파운드, 통합급여 전환 대상자 추가 지원으로 9천만파운드, 통합급여 전환 일정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9천5백만 파운드 지출 확대
- (산업 및 성장) FY2019-20에 중소기업 고용주의 견습생 훈련 비용에 대한 공동

납부 비율(co-investment rate) 조정(10%→5%)으로 2천5백만파운드, 핵융합 기술 개발 및 상업화 지원으로 2천만파운드 추가 지출

- (주거, 환경)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당국(잉글랜드, 웨일즈) 주택수입계정(HRA)의 차입한도 철폐로 FY2019-20에 3억 8천5백만파운드, 플라스틱 문제 대응(R&D)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에 2천만파운드 소요
- (지역 발전) FY2019-20에 도심 상가지역 재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Future High Streets Fund 도입으로 2천5백만파운드, 북부지역 교통망 개발을 위한 Northern Powerhouse Rail 지원으로 4천만파운드 등 지출 확대

<표 7> 2018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공공서비스 지출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2018년 6월에 발표된 지원 계획	0	-7,350	-11,130	-16,090	-21,400	-27,610
돌봄 서비스: 2018-19~2019-20 지원	-285	-775	-	-	-	-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	0	-45	-25	-15	-15	0
교통: 도로 유지보수	-500	0	0	0	0	0
학교: 2018-19 자본 지출	-475	0	0	0	0	0
사범: 2018-19 교도소,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60	0	0	0	0	0
국방: 2018-19~2019-20 지원	-200	-800	0	0	0	0
공공부문 리더십 센터	0	-10	-10	-10	0	0
휴전기념일 기념	-15	0	0	0	0	0
생활수준 개선						
통합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조정	0	-545	-865	-1,130	-1,400	-1,695
통합급여: 전환 지원	-35	-90	-170	-255	-240	-205
통합급여: 이행 기간 조정	0	-95	+320	+845	+745	+250
산업재해장애급여 개선	0	0	-5	-5	-5	-5
저신용자 대출 지원	0	-5	*	0	0	0
연금정보제공시스템(pension dashboard) 추가 지원	0	-5	0	0	0	0
장애인 시설 보조금 확대	-65	0	0	0	0	0
산업 및 성장						
견습제도: 고용주 공동 납부 비율 조정	0	-25	-60	-60	-70	-70
역량: 자영업자 지원 과정 시범사업	0	-5	-5	0	0	0
역량: 청년 실무교육(OJT) 시범사업	0	-5	-5	0	0	0
역량: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0	-5	0	0	0	0
기업: 지식 이전 파트너십 확대	0	0	-5	-10	-10	-10
기업: 스타트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	0	0	-5	0	0	0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기업: University Enterprise Zones 확대	-5	0	0	0	0	0
무역: 통상정책(Global Britain)	0	-5	0	0	0	0
에너지: 핵융합 관련 지원	0	-20	0	0	0	0
양자 기술: 연구개발	0	-5	-5	-15	-10	0
주거 및 주택소유						
지방당국 주택건설 차입 한도 철폐	-95	-385	-850	-855	-1,235	-1,235
도시개발공사 : 경쟁 펀드	0	*	-5	-5	0	0
저렴한 주택 공급 지원	0	-5	-5	-5	0	0
전략적 주택공급 계획 지원	0	-5	-5	0	0	0
환경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및 재활용	0	-20	0	0	0	0
방치된 쓰레기 처리장 개선	0	-5	-5	0	0	0
도시 수목 식재	0	-5	-5	*	*	0
대기 질 개선	-10	-15	0	0	0	0
산업 에너지 전환 기금	0	-20	-60	-90	-75	-70
지역발전						
Future High Streets Fund: 경상지출	0	-20	-15	-15	-10	-5
Future High Streets Fund: 자본지출	0	-5	-75	-220	-240	-195
도시 성장 계획(City and Growth Deals)	-5	-40	-40	-	-	-
Coventry: City of Culture 행사	0	-10	0	0	0	0
Northern Powerhouse Rail	0	-40	0	0	0	0
East-West Rail	0	-20	-	-	-	-
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UK Mobility Data Institute	-20	0	0	0	0	0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기부장려세제(Gift aid): 소액기부금 한도 확대	0	-5	-5	-5	-5	-5
국세청(HMRC) 예산 지원	-5	0	0	0	0	0
조세회피·탈루 방지						
R&D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 남용 방지 기존에 발표된 정책	0	0	0	+20	+45	+45
Index Linked Savings Certificates(물가연동채권) 인덱스 조정	0	+35	+85	+150	+165	+175
국가재교육프로그램 1단계	0	-10	-25	-80	0	0
기업 지원	0	-35	-	-	-	-
Birmingham: 첨단교통도시 추진	0	-10	-10	-10	0	0
음식물쓰레기 절감(시범사업)	0	-20	0	0	0	0
지자체연합기구 차입권한 조정	-45	-160	-245	-205	-70	0
청소년폭력예방기금(Youth Endowment Fund)	-225	0	0	0	0	0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0	-15	-20	0	0	0
총 지출정책 효과	-2,035	-10,905	-13,370	-17,880	-23,650	-30,520

주: 1.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2.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8*, 2018.10., Table 2.1.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인프라 투자 확대

- 예산안에서 국가생산성투자기금¹⁰⁾의 운영 기간을 FY2023-24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370억파운드 증액
- (교통) 도로투자전략²(Roads Investment Strategy 2)에 2020~2025년에 약 253억 파운드 투자 및 지방 도로·교량의 유지 보수 등에 4억 2천만파운드 투자
 - 잉글랜드 도시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Transforming Cities Fund 운영을 FY2022-23까지 확대
 - 첨단 운송 기술, 서비스, 디지털 지불 시스템 등의 시범 사업을 위한 Future Mobility Zone 도입에 9천만파운드 투자 등
- (디지털 인프라) 광통신 네트워크(full fibre networks) 발전 전략을 위한 투자
 - 기업 및 주민들의 초고속 인터넷 설치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등 농촌 지역 광통신 인터넷 구축 시범 사업에 2억파운드 배정
- (주택) 주택 인프라 기금(Housing Infrastructure Fund) 5억파운드 증액 및 2017년 가을예산안에서 발표된 종합 주택 정책에 대한 추가 조치 발표
 - 경전철 개선 등 이스트 런던의 신규 주택 확보 지원, 중소 주택건설회사에 대한 새로운 대출 보증 계획, 13,000호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조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FY2021-22까지 6억 5천3백만 파운드) 등 주택건설 투자
 - 2018년 10월부터 주택수입계정(HIRA)의 차입한도(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차입을 통제)를 철폐하여 지방정부는 연간 약 1만호의 주택 건설을 확대할 전망

10) 국가생산성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은 주택 건설, 운송, 디지털 인프라, R&D 등 생산성에 중요한 분야에 대해 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됨

- (연구개발) 과학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16억파운드 자금 배정,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을 통한 제조업 혁신 지원, 전기차 기술 지원 등을 위한 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11억파운드 증액 등

□ 지역발전 지원

- 도심 상가(High Street)는 지역 사회·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 감면을 통해 지원 예정
 - 향후 2년간 도심 상가 지원을 위해 과표 기준 51,000파운드 미만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해 비거주재산세 1/3 감면
 - 지방의 편의시설 개방을 위해 공공화장실에 부과하는 비거주재산세 100% 감면
 - 지방 언론사 활성화를 위해 지방 신문사 사무실의 비거주재산세 감면(1,500파운드) 규모 유지 등
 - 이러한 비거주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 당국 세수 손실 전액을 보상할 예정
- 지방 도심 상가를 탈바꿈하기 위해 Future High Streets Fund를 도입하여 지방 정부를 지원(6억 7천5백만파운드 투자)
 - 도심 상가의 접근성 및 혼잡 개선, 주변 재개발 지원 등 인프라 투자 지원
 - 소매업 부양을 위해 역사적인 도심 상가를 복원하고 상업용 건물을 주거, 사무실, 문화 명소로 활용하는 등 기존 시설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사업(5천5백만파운드) 추진
- 지역 교통망 발전을 위해 Northern Powerhouse Rail, East West Rail 자금 지원

□ 기업 지원

-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를 현행 2십만파운드에서 1백만파운드로 확대
- 사업 및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비거주용(non-residential) 건축물에 대한 2% 자본투자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도입

- 2천여 개의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대학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역량 제고(Small Business Leadership Programme), 지식 이전 파트너십¹¹⁾ 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2천5백만파운드 투자)
- 혁신적 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연기금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유럽 투자은행그룹(EIBG)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EU 탈퇴 시 영국의 혁신적 성장기업 자금 조달에 추가 자금 지원 등

나. 복지 및 공공서비스

-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¹²⁾ 추가 지원) 2018년 6월, 정부는 NHS 7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5년 기간의 추가 예산 지원 계획¹³⁾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자금을 배정
- FY2019-20부터 FY2023-24까지 연평균 3.4% 실질증가율로 NHS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FY2023-24년에는 205억파운드(실질가치 기준)를 증액할 전망
 - 이에 따라 NHS 지원 예산(직원 연금 기여금 추가 지원 제외)은 FY2018-19에 1,146억파운드에서 FY2023-24에 1,478억파운드(명목가치 기준)로 추산됨

11) 지식 이전 파트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은 대학·연구기관이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
참고: 영국 정부, Innovate with a business-academic partnership: apply for funding, 2018.1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novate-with-a-business-academic-partnership-apply-for-funding>

12) 영국은 1948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도입하여 지불능력이 아닌 치료 필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일부 서비스는 제외)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은 대부분 조세로 조달되며 이외에도 국민보험기여금, 기타 환자 부담 수수료 등으로 조달됨. 따라서 영국의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지출 검토에서 국가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제시하고 있음

13) 참고: 영국 총리실, Prime Minister sets out 5-year NHS funding plan, 2018.6.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sets-out-5-year-nhs-funding-plan>

<표 8> NHS England 경상지출 부처별한도(RDEL)

(단위: 십억파운드)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신규 예산 규모(명목가치)	114.60	120.55	126.91	133.15	139.83	147.76
(증액 규모(실질가치))		(4.1)	(8.3)	(12.1)	(16.1)	(20.5)
직원연금기여금 추가 지원(명목가치)		1.25	1.25	1.25	1.25	1.25
신규 예산 규모 합계(명목가치)	114.60	121.80	128.16	134.40	141.08	149.01

출처: 영국 총리실, NHS funding settlement, 2018.6.18.

- NHS는 정부 지출의 최우선순위이며, 이번 추가 예산은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NHS 신규 장기 계획(연말 발표 예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
 - 장기 계획의 우선순위에는 치료의 안전성·질 제고를 위한 성과 기준 달성, 암 치료 수준 발전,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보건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 질병 예방에 중점 등이 포함됨
 - 또한 지속가능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계획 마련 시 재무 부가 제시한 기준(재정 균형 달성,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보건 시스템 변동성 축소 등)을 충족해야 함
 -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추후 2019 지출 검토에서 최종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
 - 이 외에도 FY2023-24까지 정신 건강 서비스 예산 연 20억파운드 이상 확대 예정(NHS 예산 지원에 포함)¹⁴⁾
 - 모든 주요 응급실(A&E)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지원 제공, 지역별로 어린이 및 청소년 위기지원팀 운영, 정신건강 전문 구급차 확대, 위기 지원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위기 지원 24시간 핫라인 등 지원 등
- (통합급여¹⁵⁾ 관련 지원 증액)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과 통합급여로 전환하는 수

14) 참고 : HM Treasury, Budget 2018: 24 things you need to know, 2018.10.29.

15) 재정적 유인 개선, 절차 간소화, 근로 유인 제고, 부정행위 방지,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는 2013년에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제도를 도입함. 기존의 6가지 수당(소득 기반 구직수당, 소득 보조, 주거 급여, 소득 기반 고용지원수당,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이 통합급여로 대체. 점진적 확대 도입을 통해 당초 2017년 도입 완료 예정이었으나 완료 시기가 연기되고 있음

급자 지원을 위해 예산안에서 연간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정책 조치 발표¹⁶⁾

- 2019년 4월부터 통합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¹⁷⁾을 1천파운드 상향 조정하여 약 2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 이는 아동 및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연간 630파운드의 소득을 보전 받는 효과임

- 2020년 7월부터 기존 제도에서 통합급여로 전환하는 수급자가 첫 2주간 소득 기반 구직수당, 소득 기반 고용지원수당, 소득 보조 추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110만명의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지원
- 자영업자의 통합급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소득기준¹⁸⁾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 기간(12개월) 적용 대상을 수익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수급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초과지급 복지 급여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부터 초과지급분의 상환 속도 완화(초과지급분 공제율 축소(40%→30%)) 등

□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방정부에 성인 및 아동 돌봄 서비스(social care) 관련 재정 추가 지원

- 성인 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FY2019-20 2억 4천만파운드), 지방정부에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서비스 관련 추가 지원(FY2019-20 4억 1천만파운드)
- 장애인 시설 보조금 증액(FY2018-19 5천5백만파운드),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 혁신 사업 관련 지원(5년간 8천4백만파운드) 등

다. 브렉시트(Brexit) 대응

□ 재무부 장관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전망에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Spring Statement¹⁹⁾를 예산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

16) 출처: HM Treasury, Universal Credit: Budget 2018 brief, 2018.10.29.

17) 근로소득공제액 이상의 수입에 대해 수당 삭감률(taper rate)을 적용하여 통합급여액을 계산

18) 자영업자의 수입이 최소소득기준(Minimum Income Floor) 이상이면 실제 소득을, 미만이면 최소소득기준을 바탕으로 통합급여액을 계산함. 현재 창업 초기 자영업자에 한해 12개월 동안 최소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통합 급여액을 산정해 유예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함

19) 영국은 가을에 예산안을 발표하고 차년도 3월에 Spring Statement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

음을 언급²⁰⁾)

- 예산책임청도 이번 예산안 경제·재정전망은 영국의 EU 탈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추계되었으며, 필요 시 무역, 이주, EU 분담금 정산 비용 등에 대한 최종 협정에 맞게 가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 2018 가을예산안에 제시된 영국의 EU 탈퇴 관련 조세·재정 정책

- 영국의 EU 탈퇴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파운드(FY2019-20)를 편성
 - 2018년 가을예산안에서 발표된 추가 지원 계획으로 2016년 이후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정부 부처 지원 예산은 총 40억파운드*를 상회할 전망
 - * 기존 지원분 22억파운드, 2017년 가을 예산안 추가 지원분 15억파운드(FY2019-20)를 포함한 규모
- 영국 조폐국(Royal Mint)은 2019년 봄에 EU 탈퇴 기념 주화를 발행할 예정
- 브렉시트를 반영한 세법안 일부 조정 등

라. 재정건전화

- (재정준칙 달성 평가²¹⁾) 예산책임청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 정책 하에서 '재정정책의 목표(fiscal policy objective)'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평가함
- (재정정책의 목표: 공공부문 순차입 기준)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대 부담 등으로 인해 FY2025-26에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 FY2025-26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0.9%로 적자가 예상됨
 - 다만 이번 예산안에 재정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FY2023-24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의 변화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20) 출처 : 영국 의회, Autumn Budget 2018: A summary, 2018.10.29.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BP-8428>

21)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 하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재정목표: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정부가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²²⁾를 2%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Fiscal Mandate)를 기존 목표 기한(FY2020-21년)보다 3년 일찍(FY2017-18)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보완적 재정목표: ①순채무 기준)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의 채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평가
- (보완적 재정목표: ②복지지출 한도) FY2022-23에 복지지출은 정해진 한도 대비 20억파운드를 하회(한도+마진²³⁾ 대비 60억파운드 하회)하여 기준을 충족할 전망

<표 9> 복지지출 한도 및 복지지출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복지지출 한도(welfare cap)					131.1
중간 경로(pathway)	120.9	122.0	124.7	127.8	-
마진(margin)	1.2	1.8	2.5	3.2	3.9
복지지출 한도+마진	122.1	123.8	127.2	131.0	135.0
복지지출 전망치(2018.10.)	119.8	121.8	123.4	126.0	129.1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Table 5.4.

<표 10> 재정준칙 기준 및 달성 여부 평가

	설정 목표 ²⁴⁾	달성 여부 평가
재정정책의 목표(fiscal policy objective)		
- 공공부문 순차입 (재정수지)	다음 정권(2020~2025)에서 최대한 빨리 공공재정 균형 달성	[어려움] FY2025-26에 재정균형 달성은 어려울 전망
재정 목표(fiscal mandate)		
-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 FY2020-21까지 2% 미만으로 감축	[충족] FY2017-18에 조기 달성, FY2020-21에 1.3%를 기록할 전망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		
- 공공부문 순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FY2020-21에 하락세를 달성	[충족] FY2017-18에 조기 달성, FY2020-21에 전년 대비 3.2%p 하락할 전망
- 복지지출 한도 (welfare cap)	FY2022-23에 복지지출의 한도 (1,311억파운드) 준수	[충족] 복지지출이 FY2022-23에 한도 대비 20억파운드 하회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Table 5.1, Table 5.2,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cyclically-adjusted net borr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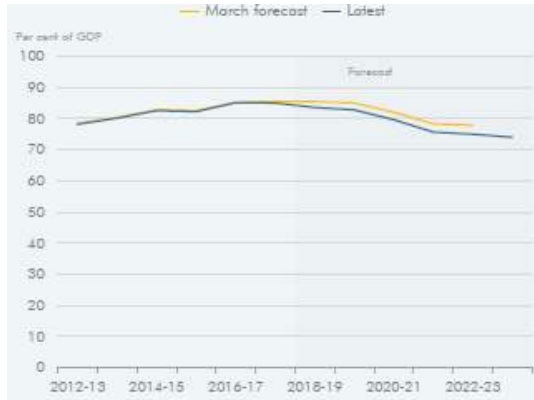
23) 목표 기한 복지지출 한도의 3%를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에 대응한 마진(margin)으로 설정

24) 2016년 가을보고서에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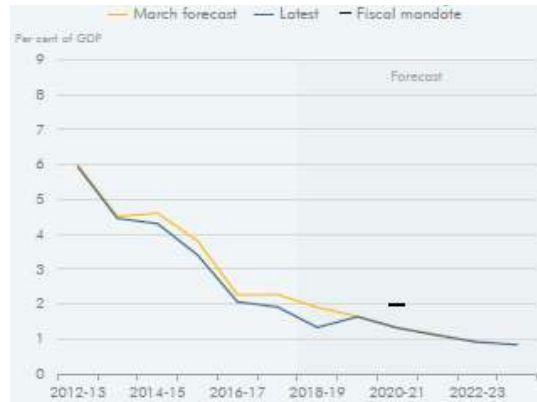
[그림 4] 공공부문 순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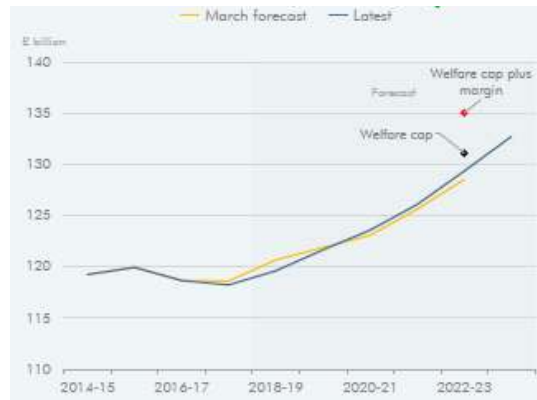
[그림 6] 공공부문 순채무



[그림 5]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그림 7] 복지지출 한도



출처: OBR, October 2018 forecast in picture, 2018.10.

- 2019년에 새로운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다년도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채무를 절감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보장하고자 함
 - * 영국은 중기지출계획인 지출 검토 제도를 통해 정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이에 따른 자금 배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등을 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출 검토는 FY2016-17~FY2019-20에 대한 지출 검토(2015년 11월 발표)임
 - 과거 지출 검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정책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결과·성과가 체계적으로 추적되도록 할 예정
- 정부 자산의 수익 개선과 부채 비용 감축을 위해 재무부는 2017년 가을 예산에서 최초로 대차대조표 검토(Balance Sheet Review)를 도입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대차대조표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추가로 제시

재정목표를 규정(2017년 1월 의회에서 통과됨). 복지지출 한도의 적용 기한은 2017년 11월에 조정됨

- IMF 기준에 맞는 정기적인 통합 대차대조표 보고서 발표(2019년 봄) 예정, 지적 재산권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수익 개선 방안 제시, 신규 정부 프로젝트에 재정 리스크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투자방식(PFI) 활용 중단, 인플레이션 노출 위험 감축 등
- 이 외에도 금융위기 시절 취득한 금융부문 자산, 더 이상 보유할 정책적 이유가 없는 법인 자산·금융 자산 매각을 통해 정부 재정을 개선할 계획
 - FY2023-24까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지분 매각 완료,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자산 매각 프로그램 기간 연장 등